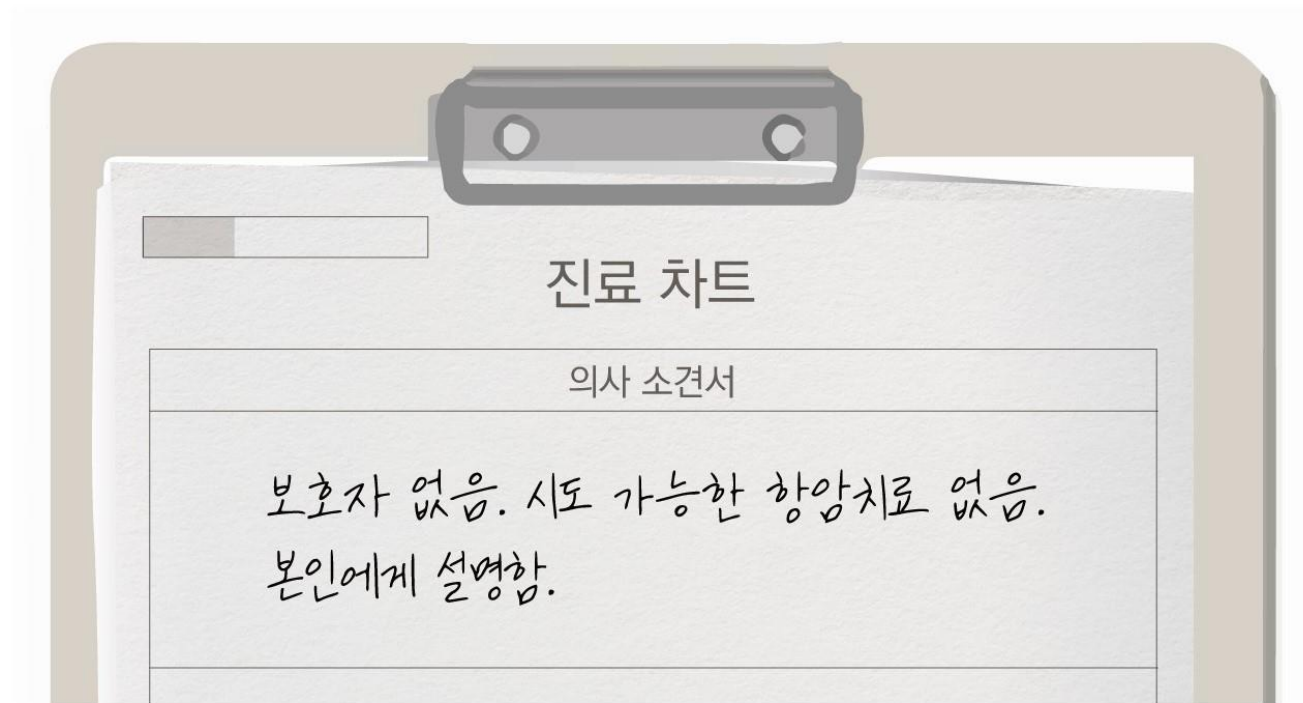


한의사가 전하는 암 병동에서의 휴머니즘

선생님
이제 그만
저 좀 포기해 주세요

글Egg 





4차 병원,
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모입니다.

실제로 4차 병원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지만, 한방 암 센터에서 말기 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.

환자들은 동네에 있는 1차 의원부터 대학병원 같은 3차 병원까지 다 돌고 나서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사를 찾습니다.

갑자기 나타난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?

「선생님,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」는
억울하고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말기 암
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.

말기 암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절망,
삶의 끝자락에서의 인생에 대한 회고, 그리
고 두려움 속에서도 웃고 사랑하는 이야기입
니다.

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며, 그 모습
들이 세상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기억하는 한
의료진의 이야기입니다.





편집하며 울다가 출판이 늦어진 도서

“원고를 검토하면,
그 다음날은 퐁퐁 부은 눈으로 출근했습니다”

원래 출간예정일은 4월이었습니다. 흐르는
눈물을 닦다 보니 어느새 5월이더군요.

슬픔과 감동, 그리고 바쁜 일상에 한동안 잊
고 지냈던 감정들의 환기가 느껴지는 원고였
습니다.



의사가 아닌, 환자가 주인공인 에세이

의사가 저자인 에세이는 대부분 저자가 의료 환경에서 느낀 감상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.

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책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주인공입니다. 특정 시선에서 해석되지 않은, 온전한 환자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.

저자 소개



“은혜야, 1000명 중에 999명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,
단 1명의 환자가 살려달라는 걸 들어주는 의사가 되려면
공부 계속해야 돼”

이런 의사가 되고자 평생을 노력하다 세상을 떠난 부친의 영향으로, ‘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’의 길을 선택했다. 음악가 집안의 영향으로 타고난 감성적인 성정은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었다.

환자를 직접 떠나보내는 날이 많아질수록,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세상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. 이미 떠난 이들에게는 존엄한 안녕을 바치고자, 남은 이들에게는 대신 써내려간 추억의 기록들로 남기고자 글을 썼다.

목차

머리말 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		8	2장 누가 무덤까지 못 들고 간다고 했나요			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		
1장 살려고 받는 치료가 맞나요			아버지, 그거 저희한테 주실 거죠?		57	근데 왜 선생은 진료과목이 암으로 되어 있는 거요?		171
선생님, 이제 그만 제발 저 좀 포기해주세요.		17	내 새끼를 지켜라! 목숨을 건 외출		63	마지막인 줄 알았던 단풍		176
제가 와이프를 죽인 건가요?		22	당신이 남편이면, 지금 저 남자는 누구죠?		73	그 호두 파이,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?		184
지금 그만둬야 호상이야		30	남편은 치매라니까요?		80	들어올 땐 하나 나갈 땐 둘		190
하늘로 갈 때도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		35	3장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어서 행복했어요			들어올 땐 둘 나갈 땐 셋		198
그러니 여한은 없어요		42	예쁘게 죽게 해주세요, 환자 티 안 나게		87	땀땀말 글을 마치며,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		205
저 이렇게 계속 버티기만 하면 돼요?		47	중국어 가르쳐 드리겠다는 약속, 못 지킬 것 같아요		93	번외 혼자였다면 버틸 수 없었을 나날들		
			줄 수 있는 게 내 작품뿐이라		102	번외 1		211
			한여름의 봉어빵		111	번외 2		216
			4장 가족을 놓아준다는 것			번외 3		218
			어머니, 불효한 자식을 살리셨습니다		125	번외 4		221
			막내딸 생일 파티		131	번외 5		223
			아들과의 마지막 축구 경기		139	번외 6		225
			알코올중독자의 딸일지라도		148	추천사		226
			좋은 아빠, 또 좋은 아들이고 싶었는데		153			
			그래도 딸 결혼식에 손은 잡고 들어가야지		160			

그 말을 듣는 순간, 심장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다.

“너무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죠? 사모님 계시는데 잘 버티실 수 있어요.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요.”

겉으로 감정을 숨기고 애써 여상히 말했지만 환자의 대답은 같았다.

“저 좀 포기해 주세요...”

선생님,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미리보기

“선생님,
이제 그만,
제발, 저 좀
포기해 주세요”

자, 너희 엄마가 너 살려보겠다고 받았던 약이다

어머니가 돌아가셨다.

지병의 악화가 원인이었고, 이미 몸과 마음이 쇠약
해져 있던 어머니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얼
마 못 가 돌아가셨다.

“자, 너희 엄마가 너 살려 보겠다고 받았던 약이다.”

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가 한약 봉투 하나를
툭 던지며 말했다.

그제서야 내 마음도 모르고 치료에만 집착한다며
터부시했던 어머니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.

[어머니, 불효한 자식을 살리셨습니다 미리보기](#)

추천사

“이 책은 따스한 마음으로 말기 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위로해주는 한의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. 한의사가 쓴 글이지만 환자가 주인공이며, 이 책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환자와 가족분들의 따스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.”

-제 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

"슬프지만 아름다운 책입니다. 암 병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생동감 가득한 이야기가 듣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펼쳐보길 추천합니다."

-강동경희대병원 간호사 이고은

“우리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한 경우가 드물다. 죽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막상 가까운 가족이나 본인에게 현실이 되면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절망하고 크게 슬퍼한다. 이 책은 그러한 절망과 슬픔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깨닫게 된다. ”

-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양왕용



출판 | 글ego

의사선생님,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. [에세이]

한의사가 전하는 암 병동에서의 휴머니즘 |
한정판 NFT선물 | 6주 책쓰기 참여권 선물

544% 6,534,000원

펀딩 성공

텀블벅 펀딩 500% 초과 달성

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서의 취지와
내용을 좋게 봐주셔서 500%를 초과하여
펀딩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



2022 서울국제도서전 참여



부스 예시

책 2022 서울국제도서전
Seoul International
Book Fair
2022.06.01——05
코엑스 Hall A
반걸음 One Small Step

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알리고자,
「선생님,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」
는 부스 단독으로 도서전에 참여합니다.

글ego 출판사 소개

“평범한 우리들의 깊은 이야기”

평범한 우리들에게도 그 내면에는 깊은 이야기 하나쯤은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.
그 이야기들을 발견해 글로 꺼내고 책이라는 견고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.

글을 통해 이루는 ‘생존 그 이상의 삶’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.

[글ego 홈페이지](#)

[글ego 인스타그램](#)

「선생님,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」

휴머니즘 에세이에 담긴 따뜻한 감동을 만나 보세요.

◇ 연락처: 010.2818.4295

◇ 이메일: manage4egowriting@gmail.com

◇ 카카오톡 플러스친구: '글ego'

저자의 뜻에 따라 도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암환자를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.